

♡!=아!~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에게.....,어안이 병병할 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아버지. 이 하늘과 땅에 임하는 이런 일을 이런 일을 어찌하옵는지요! ♡!=본문 말씀 중에서: 아!~아버지. 무시무시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창조와 개국 이래로 도래인 대 환난의 시대! (이 말씀은 고난도의 말씀입니다. 읽으시다가 혹시 몸에 이상 증세가 생기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의 세계는 그냥 열리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의 세계는 너무나 복잡해 성 영님께 말씀으로 그 믿음을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알 수도 없는 것이었고. 그리고 성 영님의 가르침이 아니시면 갈 수도 없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열리지 않는 것이었고. 그리고 잘못될 수밖에 없는 세계가 영의 세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 영님께서 열어주셔야 바르게 알고. 그리고 바르게 믿고. 그리고 또 성 영님께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성 영님을 의지하고 좇아서 그 인도와 가르침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영의 세계인 것이었지만 그 영의 세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기 위해서는 방해하는 사단과 그 사자들과 치열하고도 자기의 자아를 죽음에 내주어야 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이 장악한 공중 권세를 뚫지 못하면 영의 세계는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는 사단이 공중 권세로 공중에 거쳐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고 지키면서 절대로 그 길을 내주지 않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사단과 그 사자들과 벌이는 영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그리고 대충대충. 설렁설렁. 얼렁뚱땅. 어영부영도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그리고 또 대충대충. 설렁설렁. 얼렁뚱땅. 어영부영도 아닌 내 영혼이 영원한 죽음이나. 아니면 영원한 안식이나 하는 중차대하고 막중한 사명의 일이기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히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는 지옥 형벌이나.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니면 영원히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 곧 의의 평 강한 열매를 맺고서. ♡!=히브리서 12

장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지배를 받는 하나님에 나라의 영원한 안식이나 하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중차대하고 막중한 사명의 문제이었기에 자기 목숨을 내주고 사단과 그 사자들과 벌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좁은 문이요. 그리고 좁고 험착한 길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육의 자아를 죽음에 내주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육체의 목숨도 죽음에 내주는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서 정치범들과 살인죄를 범한 자들과 그 밖에 중범죄자들을 처형시킬 때 그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면 처형을 시키기 위해 처형장까지 자기가 달려서 죽을 십자가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가서 거기서 그 죄인을 자기가 어깨에 짊어지고 온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키는 방법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로마법으로 중죄인으로 몰려서 예수님께서 달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어깨에 짊어지고 형장으로 가서 그 십자가의 형벌로 죽음을 맞을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일이기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육체가 죽임을 당할 각오를 하고 자기가 달려서 죽을 십자가를 지고서 형장으로 끌려가는 자 같이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아버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생명의 뜻을 제가 정확하게 이

해하였고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는 자기 자아가 죽어야 하고, 그리고 때로는 자기 목숨도 내어놓아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그런 거룩한 심 영의 소유자들에게 성 영님께서 함께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도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 곧 믿음의 선진 들은 모두 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심 영이었던 것이었기에 성 영님께서 그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도록 그 믿음을 도와서 세우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치 적으로는 예수님께서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피조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피조물인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기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니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의 신분이었고 사람들은 땅의 신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15장 47절 말씀!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땅의 신분인 사람들이 하늘의 신분인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는 일도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은 죄인이었으며, ♥!=로마서 3장 10절+12절 말씀!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죄 없으신 의인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요한1서 3장 5절 말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 어떻게 죄인인 사람들이 의인인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겠는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서는 죄 없으신 의인으로서 생명의 피를 흘려 죽음을 맞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창조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아버지의 성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 영이신 보혜사 성 영님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란 이름을 구주로 믿고 내 안에 영접하면 내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이요, 그래서 내 영혼에 성 영님께서 내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 보혜사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 영님께서서는 예수님의 이름, 곧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임하였기에 성 영님께서서는 내

영이 되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또 내 영혼은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얻은 내 영혼은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내 영혼은 하늘의 신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래서 그 하늘의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 영님을 힘입어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들을 굴복시키면서 때로는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영혼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기에 이제는 내 영은 죄인의 신분이 더 이상 아닌 예수님께서 흘리신 생명의 피로 의롭다고 하신 의인이요. 하늘에 신분인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낳았기에 성 영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의 신분이신 예수님. 곧 의인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아버지. 이거 신기하고. 신비하고. 신나고.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요. 영의 세계가 확 열리면서 가슴이 뻥 뚫리고. 그리고 설레는 일이었고. 그리고 또 마음이 흥분도 되었고. 그리고 가슴이 두근 반. 세 근 반이었으며. 그리고 또 긴장되면서 손도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양보도. 타협도. 비굴하게 굴복도. 얼렁뚱땅. 설렁설렁. 대충대충. 어영부영도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육체가 죽어야 하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죽기 살기로 하는 것이 마귀와 그 사자들과 접전하고 벌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찾는 이가 적은 좁은 문이고. 그리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는 믿음. 곧 신앙. 곧 믿음의 선한 싸움은 절대적이었던 것이었으며. 그리고 타협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또 양보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고 연명하는 일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물러설 수도 없는 일이었기에 사단과 그 사자들이 진을 치고 가로막고 공격하면서 휘방하는 일기에 좁은 문이었고 좁고 협착한 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던 신앙의 선진들. 곧 믿음의 선진 들은 세상과 타협도. 양보도. 위협에 굴복도.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은 일기에 돌에 맞아 죽었고. 그리고 칼에 목

베임을 당했고. 그리고 또 교수형을 당했고. 그리고 옥중에서 수일 수 개월 수년. 수십 년 동안 수감생활을 당했고.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십자가 형벌을 당했고. 그리고 어떤 이는 유배 생활을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6절+38절 말씀! 또 어떤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신앙의 선진들. 곧 믿음의 선진 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신앙. 곧 믿음. 곧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양보도 아니었고. 그리고 타협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굴복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대충 대충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실령실령도 아니었고. 그리고 얼렁뚱땅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어영부영도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죽고 사느냐 하는 전쟁이었고 죽어야 이기는 전쟁인데 어떻게 양보가 있었겠으며. 그리고 타협이 있겠으며. 그리고 또 굴복이 있겠으며. 그리고 대충 대충이 있겠으며. 그리고 또 실령실령. 얼렁뚱땅. 어영부영하였겠는지요? 그러므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 사단과 악한 영들과 벌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이 하늘과 땅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그리고 목숨을 걸 일은 공중에 거쳐하면서 하늘길을 가로막고 있는 공중 권세자 사단과 그 사자들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외에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기에 그 외에는 모두 다 헛되고 헛된 것들뿐이었으며. 그리고 영원히 헛된 것들뿐이기에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서 헛되고 헛된 것들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전도서 1장 2절+14절 말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찌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사단이 공중에 거처하면서 공중을 자기의 거처로 또는 영역으로 삼고서 하늘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사단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물론 사단은 첫 사람을 유혹해 사람들의 육을 지배하게 되어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이기는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공중에 거처하면서 자기의 권세로 공중을 장악하고 하늘길을 가로막고 있는 일이기에 사단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공중이 자기의 영역인 사단이 순순히 하늘길을 내줄 리가 만무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는 마치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순순히 내주지 않은 이치와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피** 흘리는 전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숨을 걸고 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영생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달린 사단과 그 무리와 하는 영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어떠하겠는지요? 그래서 사단과 그 사자들도 결코 양보할 수가 없는 자기의 영역을 순순히 내주지는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단과 그 사자들과의 영적인 전투인 믿음의 선한 싸움도 죽기를 각오하면서 내 목숨을 내어 걸고 하는 것이 영적인 전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얼렁뚱땅. 실렁실렁. 어영부영. 대충 대충으로 되겠는지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신부를 영접하려고 공중으로 강림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18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러므로 이것은 공중에 거처하면서 공중을 장악하고 하늘길을 가로막았던 사단의 공중 권세가 공식적으로 깨졌다는 의미이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시간 세계가 아닌 영원무궁한 영의 세계에서 사단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지혜가 뛰어났으나 그 아름다움과 지혜에 스스로 속아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 스스로 사단이 되어서 하늘에서 자기의 처소를 잃고 땅으로 쫓겨났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7절+9절 말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그래서 사단은 자신이 피조물인 신분을 스스로 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사단 스스로 파멸의 길을 자처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단이 사단이 날 일을 스스로 자처해 하나님을 대적한 대적자란 뜻에서 사단이 사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담을 속여 공중을 장악하고 거주하기에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이기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의 피 흘려 죽음을 맞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기에 사단의 사망 권세와 공중 권세가 공식적으로 깨어졌고. 그리고 상실했고. 그리고 또 잃었고. 그리고 폐하여졌기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사단은 그 공중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잃고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 하늘과 땅은 사단이 땅으로 쫓겨나 자기 처소로 삼기에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발악하는 때이기도 하여서 환난의 시대가 되는 일이기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

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찢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 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여 오시면 이 하늘과 땅에 거주하는 그 신부들은 성 영님과 함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되는 것이었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이 하늘과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시대이기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고서 생명으로 열매를 맺은 성도들은 성 영님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7년 동안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7절+10절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그런데 사단은 이 하늘과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마지막 혼신으로 발악하면서 공중으로 들림 받지 못한 종교인인 쪽정이들과 자칭 주의 종ियो. 의의 일군으로 가장한.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사단의 일군들도 자기를 의의 일군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거짓 목사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과 같은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따르던 가라지들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으나 성 영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곧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그 영혼에 임하시지 못해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없기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해 공중으로 들림을 받지 못한 종교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7년 동안 핍박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께서 불려서 세우지 않은 거짓 목사들이 날날이 드러나는 때요. 그리고 이들의 믿음이 시

험을 받는 때이기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그래서 이 하늘과 땅에 거주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으나 거짓인 거짓 목사들과 그들을 추종하면서 따르던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요. 그러므로 대 환난의 시대가 이 하늘과 땅에 도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아버지. 이 일을 어찌하옵는지요? 그런데 거기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생명의 뜻대로 하지 않았으나 길이 참으시면서 불법을 자행한 자들. 곧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지 않은 가장한 의의 일꾼들이요. 그리고 거짓 목사들이 날날이 드러나는 때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셨고. 그리고 함구하셨고. 그리고 또 침묵하셨고. 그리고 묵인하셨으나 그때에는 그들의 믿음을 준엄하고도 엄중하게 물으시고 진노하여 진노한 대접을 쏟으시는 진노의 대접. 곧 진노의 불을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쏟아부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심판하시는 때이기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1절+20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악하고 독한 현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세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네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훼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

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세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음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멘!!! 아!~아버지. 이 일을 어찌하옵는지요. 안타까운 마음이 저를 감싸는군요? 그러므로 이것을 7년대 환난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반면 초청함 받은 예수님의 신부들은 공중에서 신랑 예수님과 7년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기를 거부한 세상 사람들. 곧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때이기도 하였기에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창조와 개국한 개국 이래로 대 환난의 시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 곧 영이 영생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임하여 연합한 그 영들. 곧 성 영님과 하나요. 한영이요. 한 몸을 이룬 예수님의 신부들과 함께 성 영님께서도 공중으로 올라가셨기에 믿음을 도우시는 성 영님께서 없는 시대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은 창조와 개국한 이래로 사단과 그 사자들이 그 아들들을 조종하면서 최후 발악하는 무법천지요. 대 암흑기요. 그리고 대 심판의 시대요. 그리고 또 대 환난의 시대요. 그리고 대 핍박의 시대요. 그리고 또 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살육의 시대요. 그리고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닌 이 하늘과 땅에서 유향불 속에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한지를 육체로 감당해야 하는 시대요. 하지만 그때에도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지를 못하면 영원하고 세세토록 연기가 타오르는 지옥의 유향불 속으로 들어가는 죽음의 시대를 통과 해야 하는 무시무시한 대 환난의 시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아버지. 대 환난의 시대 아!~아버지.

말로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고. 그리고 가슴이 오싹하고. 그리고 또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죽고 싶어도 한동안 죽음이 떠나가서 죽고 싶으나 죽지도 못하는. ♥!=요한계시록 9장 5절+6절 말씀!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쏘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대 환난의 시대가 저녁노을에 어둠의 땅거미가 온 세상을 덮어서 어둠 캄캄한 대어둠의 시대요. 그리고 대혼돈의 시대요. 그리고 또 대 환난의 시대요. 그리고 백주에서도 온 하늘이 캄캄하고 어두워서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해 더듬더듬 길을 찾고 헤매는 시대요. 그리고 대 환난의 시대. 대어둠의 시대가 사람들이 육신의 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까무러치고. 기절하고. 사는 것이 두렵고. 캄캄하고. 고통스러운 살인적인 고문과도 같은 대 어둠의 시대. 대혼돈의 시대. 대 환난의 시대요. 그러므로 단 하루가 천년과 같은 대고통의 시대요. 그리고 대 환난의 시대. 대 어둠의 시대요. 그리고 또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과 고문과 고난과 환난의 대 암흑시대. 대 환난의 시대. 대혼돈의 시대가 사람들의 육체가 전갈에 쏘인 것 같은 숨이 멎을 것 같고 숨통을 조여와 죽고 싶으나 죽음도 피하는 시대요. 그래서 대 환난의 시대. 대혼돈의 시대. 대 어둠의 시대. 대 살육의 시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 있으나 살아 있지 않은 것 같고 사는 것 같으나 사는 것이 아닌 대 환난의 시대. 대 어둠의 시대. 대혼돈의 시대. 대 살육의 그 시대가 밀물처럼 물밀듯이 밀려서 닦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가 이 하늘과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루하루 도래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의 살이 뭉겨지고 살이 떨어져 나가도 그 고통을 모르는 문둥이처럼 그리고 또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이 모르는 체. 그리고 모르는 척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그리고 또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그리고 눈이 오면 오는 대로. 그리고 또 풍량이 일면 이는 대로. 그리고 이리 쓸리면 쓸리는 대로. 그리고 또 저리 쓸리면 쓸리는 대로 갈대와도 같고 가을 바람에 나무에서 떨어져 생을 마감한 낙엽과도 같아서 그 안에 생명도 없고. 그리고 쭈대도 없고. 그리고 또 방향 감각도 없고 쓸모가 없어서 불에 던져질 불쏘시개 같은 사람들이 되어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하늘과 땅에 영원히

살기를 원해서 영원히 살아갈 것 같이 안주하고 있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또 세상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유리방황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또 그 영혼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한 무리가 되어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쪽정이가 되어 있어 이미 그 영혼들은 죽어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혼들은 잠자는 자들과 같이 이 하늘과 땅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취해 있고. 그리고 그 마음들과 생각이 이 세상에서 즐기는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쾌락을 일삼고. 육체로 즐기면서 그 마음에 살을 찌우고 비대하여 도살할 날을 위해서 예비 된 짐승들과 가축들로 변해서. ♥!=야고보서 5장 1절+5절 말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군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지만 그 짐승들이나 가축들만도 못한 신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준엄하고도 엄중한 심판에 처하여 영원히 타오르고 솟아오르는 연기와 소멸한 불만이. ♥!=히브리서 10장 27절 말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 들은 아무것도 모르고들 있어 그 영혼에 위기의식이 마비되어 육신 적 삶에 안일하고 안주하면서 나태하고 태만한 삶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아버지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지요? 아!~아버지.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요? 하지만 소망이 있는 일은 참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로 초청함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지금의 때가 세상에서 안주하고. 잘살고. 즐기고. 한눈을 팔면서 육신의 안일과 즐거움으로 쾌락을 일삼을 때가 아니요. 성 영님을 의지하고 좇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서. ♥!=로마서 13장 11절+14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의롭고. 경건하고. 단정하고. 모든 일에 절제와 근신하면서 기도에 힘쓰며.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그리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을 좇아서 살아야 하는 때에 기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그런데 아!~아버지. 저에게 처음 창조와 예수님께서 초림 하여 죄요. 죄의 원흉이요. 사단의 사망에서 구원과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재창조의 일과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그 신부들을 영접하려 다시 오셔서 이 하늘과 땅에 도래하는 환난이요. 대혼돈과 대암흑의 시대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일을....., 왜 저에게 알게 하시는지요? 저는 가르치는 교사도 아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아니고 그러므로 아무런 권위도 없고. 그리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또 위치도 없고. 그리고 기반도 없는 저에게 왜 성 영님께서 보이시고. 그리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가르치시면서 문서로 남기게 하시는지요? 아!~아버지. 저는 시골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지극히 작은 소자일 뿐이었습니다. 아멘!!! 아!~아버지. 왜 저 같은 아무런 능력도. 권위도. 지위도. 영향력도 없는 저에게 이 엄청난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생명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는지요? 아!~아버지.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습니다. 아멘!!! 가슴 떨리는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멘!!! 아!~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에게....., 어안이 병병할 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아버지. 제가 무슨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 어떻게 이런 영적인 비밀을 보는 듯이 알겠는지요? 그리고 또 사람이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겠는지요? 모든 일의 정답은 가르치시는 성 영님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공중에 사단이 거주하기에 하늘길을 열기 위해서는 성도 개개인들이 성 영님을 의지하고 좇아서 피나는 영적인 싸움

을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또한 천국을 침노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견고하게 닫혀있는 여리고 성을 무너트리고 길을 만들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같이 천국 문을 열기 위해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강력한 진을 무너트리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한 것은 하나님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견고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진을 무너트리신 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너트리 열어놓으신 여리고 성을 취하여 함락시키는 일은 백성들의 몫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와 강력한 진을 십자가의 승리로 무너트리고 열어놓으신 하늘 문을 취하여 자기들 것으로 만드는 일도 성도 개개인의 몫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었고. 그리고 천국을 침노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과정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트리고 길을 열어주어 가나안땅으로 가는 길이 열렸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피**나는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사단의 공중 권세를 깨시고 하늘길을 열어놓았으나 우리도 여전히 공중에 거처하면서 하늘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단과 그 무리와 **피**나는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천국을 내 것으로 취하여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것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일이었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멘!!! 그리고 영적인 싸움이었고. 그리고 또 천국을 침노하는 과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순순히 내주지는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영들도 그러한 존재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음을 각오하여 **피**나는 혈투가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얻어지는 가나안땅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냥 얻어지는 영원한 안식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였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 그 사자들과 귀신들과 벌이는 영적인 싸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영으로 하는 영적인 싸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나안땅을 정복한 것 같이 우리는 성 영님을 의지하고 쫓아 살면서 공중에 거처하면서 하늘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단과 그 무리와 피나는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해야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것이 천국을 빼앗듯이 침노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사단과 그 사자들과의 영적인 혈투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과 그 사자들이 육을 공격하는 것을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이것이 사단과 그 사자들과 벌이는 영적인 혈투이었으며. 그리고 성 영님께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으면서 나가니 열리는 영의 세계이기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인 세계이다 보니 육의 자아를 죽음에 내주어야 하는 고통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서 사단과 피나는 영적인 혈투가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육의 자아는 마귀에게 내주고 내 영에는 성 영님을 모셔 들이고 가르침을 받고 인도받아 성 영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연단하시면서 열어주셔야 내 영이 천국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이었기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23절+26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직 성 영님을 의지하고 쫓아 살면서 육의 자아를 죽음에 내주고 그 고난을 헤치고 나가야 영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육의 자아가 멀쩡하게 살아서는 영의 길이요. 세계는 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

서 철저하게 성 영님을 의지하고 좇아 살면서 내 육의 자아는 죽음에 내주고 성 영님과 함께 영으로 살면서 영으로 헤치고 나가는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내 영이 천국으로 자라가니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아버지. 그러므로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두시고 제 입술의 말은 봉해서 입술의 말과 마음과 행동을 단속하시면서 영으로 받아서 손끝의 연필로 글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는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